



#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미국 내 성별 격차

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전공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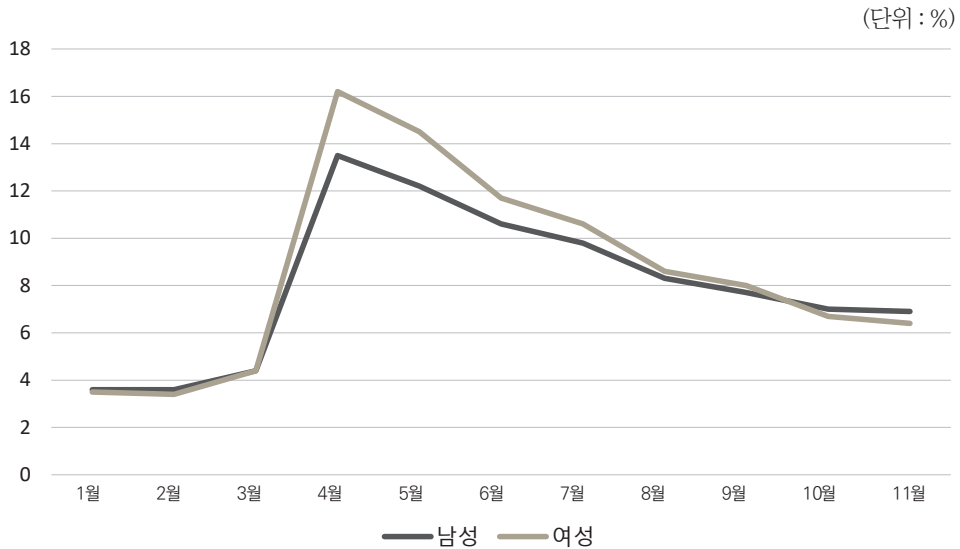
## ■ 머리말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던 한 해였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1년 가까이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인종 격차와 성별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 노동자의 고용실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여성 노동자가 어떠한 차별을 감수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 팬데믹 전후 여성 노동자의 고용실태 변화

[그림 1]은 2020년 팬데믹 기간을 전후해 나타난 성별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던 실업률은 처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3월부터 6월까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3~4월 사이 12%가량의 실업률 증가를 보였고, 남성 노동자의 실업률 증가는 1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3~4월 사이 고용률을 보면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여성의 고용률은 15%가 하락한 반면, 동일한 교육배경을 가진 남성은

[그림 1] 2020년 성별 실업률 추이(16세 이상)



자료: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된 수치임.

11% 하락률을 보였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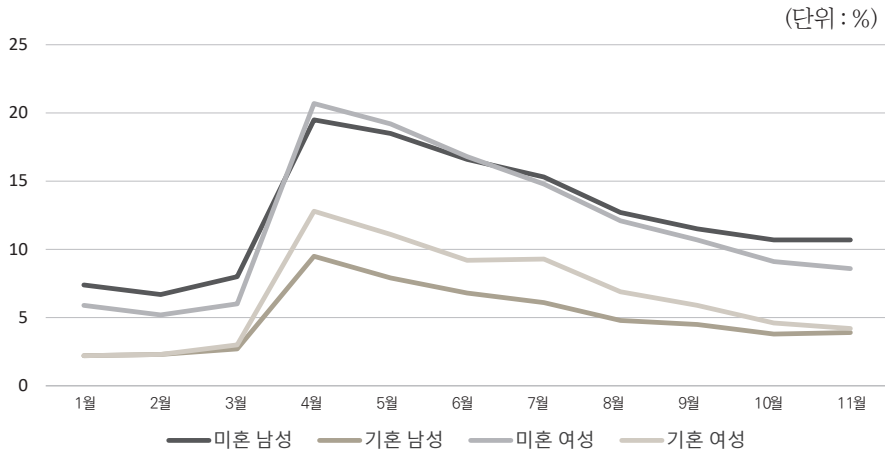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는 혼인 여부에 따른 성별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미혼 노동자의 실업률이 기혼 노동자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 노동자의 경우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혼 노동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실업률이 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자녀의 유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sup>2)</sup> 자녀가 학생인 남성 노동자나 학생인 자녀가 없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일찌감치 봉쇄정책과 학교폐쇄를 시행한 주의 학생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들은 뒤늦게 폐쇄한 주의 노동자들에 비해 68.8%나 더 많이 일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치

1) Brookings Institution(2020.10), "Why has COVID-19 been especially harmful for working women?," Retrieved on Dec 30, 2020, <https://www.brookings.edu/essay/why-has-covid-19-been-especially-harmful-for-working-women/>

2)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2020.10), "Why is mommy so stressed? Estimating the immediate impact of the COVID-19 shock on parental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and the double-bind of mothers," Institute Working Paper No.33.

[그림 2] 혼인 여부에 따른 성별 실업률 추이(16세 이상)



자료: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되지 않은 수치임.

못한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일을 그만두고 교육 및 양육부담을 져야 했던 것은 자녀가 학생인 여성 노동자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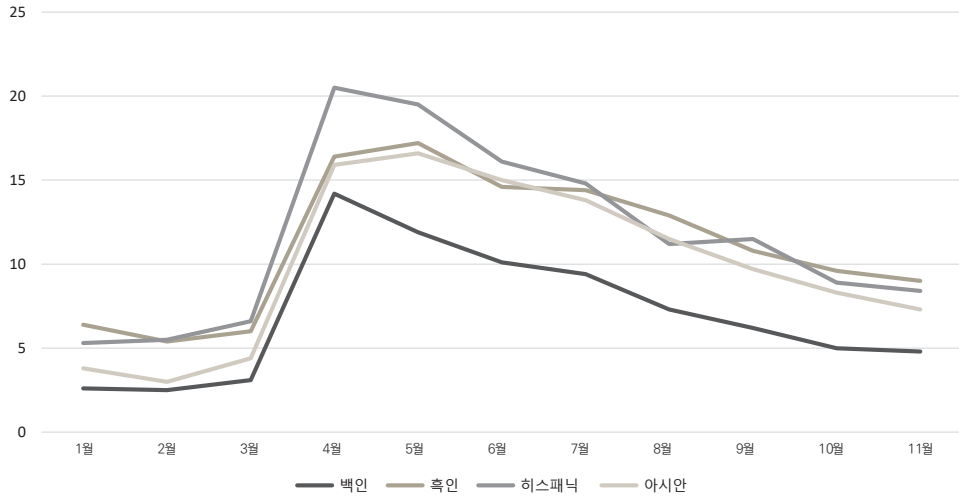
여성 노동자의 높은 실업률은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3]은 인종별 여성 노동자의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인종에 비해, 백인 여성 노동자의 실업률은 증가가 더 컸고 또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전체적으로 여성 노동자 모두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실업을 경험했지만,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상시 백인 못지않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아시안들 역시 팬데믹 기간에는 백인보다 월등히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에 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제일 큰 이유로는 주요 종사 산업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파력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레저, 교육, 건강, 소매업 등 대면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일자리 손실이 나타났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이었다.<sup>3)</sup> 특히 소매업과 접객업(hospitality)은 대

3) Catalyst(2020.12.8), "The detrimental impact of Covid-19 on gender and racial equality: Quick take," Retrieved on Dec 30, 2020, <https://www.catalyst.org/research/covid-effect-gender-racial-equality/>

[그림 3] 인종별 여성노동자 실업률 추이(16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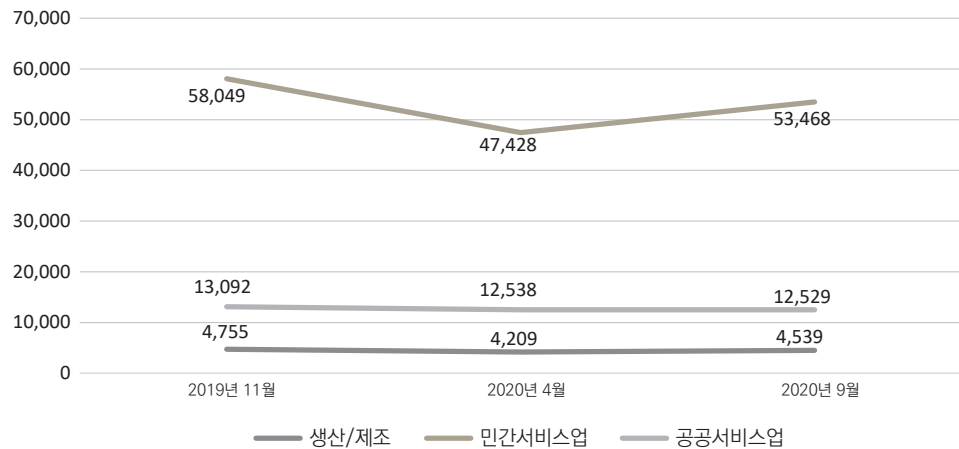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되지 않은 수치임.

[그림 4] 부문별 여성노동자 고용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된 수치임.

표적인 저임금 여성 노동업종에 해당한다.<sup>4)</sup> 이는 다음 [그림 4]에도 나타나는데, 생산 및 제조업이나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팬데믹 이후 여성 노동자의 고용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민간서비스업에서는 2019년 11월과 2020년 4월 사이 18%에 달하는 상당한 폭의 고용 감소가 있었다.

그나마 저임금 여성 노동자 중 일자리를 잃지 않은 이들의 상당수는 헬스케어나 식료품 가게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에 해당했다.<sup>5)</sup> 특히 적절한 보호장비가 부족했던 시기,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를 지속했다.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이들이 이탈할 경우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은 이 노동자들을 계속 위험한 상황에 묶어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 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한 데에는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가 큰 몫을 담당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sup>6)</sup> 2020년 5월 10일에서 6월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13.3%가 자녀양육 대안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주당 8시간 가량 근로시간을 줄여야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당 14.6시간의 손실을 감당해야 했으며 가계 수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양육을 분담하기 더욱 어려운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의 경우, 그 딜레마는 더 심각해졌다. 일자리와 자녀양육 모두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자녀양육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남성에 비해 보다 많은 여성이 가사 및 양육 노동을 위해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다.<sup>7)</sup> 이렇듯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 노동자들에게 편중된 양육부담은 미 센서스에서 발표한 다음 통계(그림 5 참조)에서도 나타난다. 25~44세 학부모 중 팬데믹 기간 동안 보육 문제로 인해 일을 중단한 비율은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 Brookings Institution(2020.10), 앞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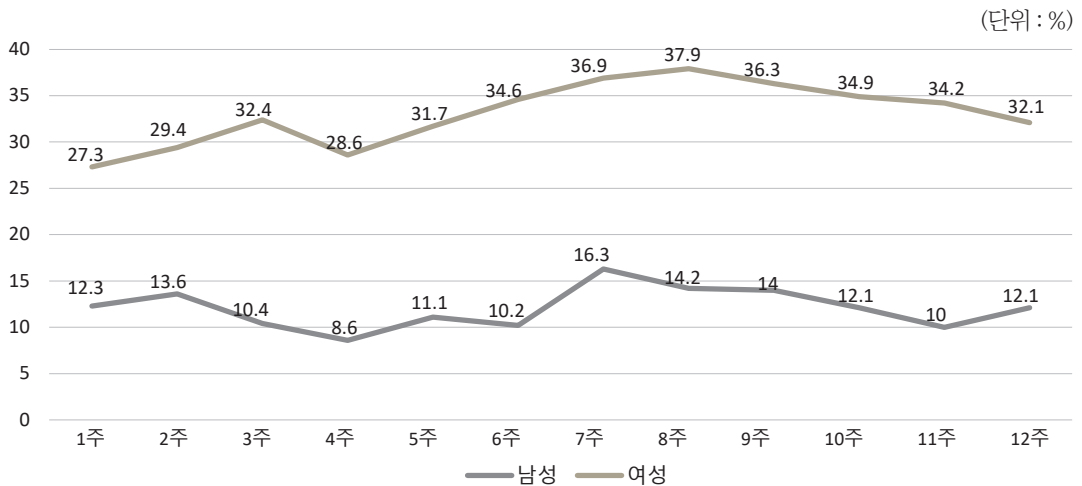
5) Brookings Institution(2020.10), 위의 자료.

6) The Washington Post(2020.7.29), “Coronavirus child-care crisis will set women back a generation,” Retrieved on Jan 1st,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0/07/29/childcare-remote-learning-women-employment/>

7) CNN(2020.8.19), “Working mothers are quitting to take care of their kids, and the US job market may never be the same,” Retrieved on Jan 2nd, 2021, <https://edition.cnn.com/2020/08/19/economy/women-quitting-work-child-care/index.html>

에도 전일제 노동자 중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매일 50% 더 많은 시간을 보육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양육과 교육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그림 5] 25~44세 학부모 중 팬데믹 기간 보육 문제로 일을 중단한 노동자 비율



자료: 미 센서스, 「가계동향조사(Household Pulse Survey)」;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보고서<sup>9)</sup>에서 재인용(1주 : 2020.4.23~5.5; 12주 : 2020.7.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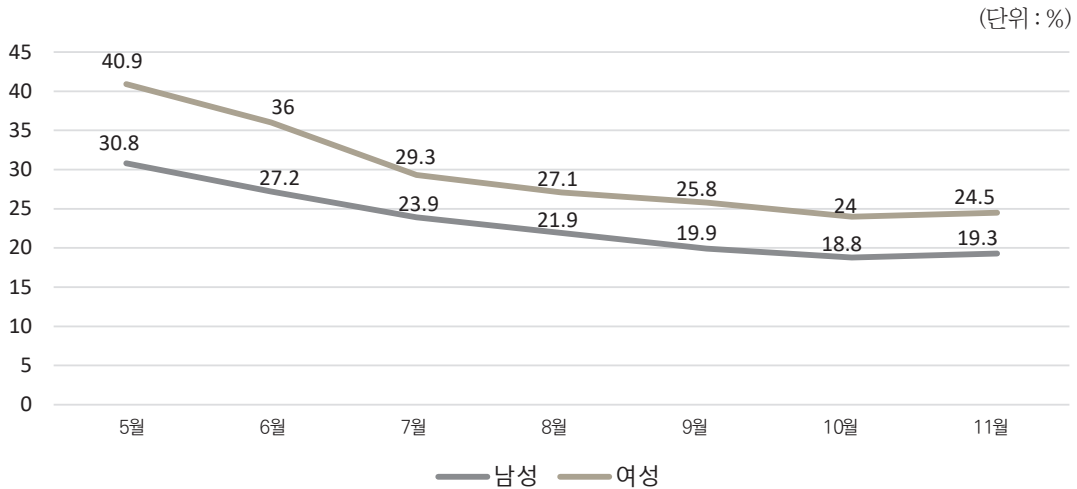
이러한 보육 문제는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으로도 이어졌다. Catalyst-CN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sup>10)</sup> 5~18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42%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양육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고용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응답하였고, 39%는 양육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고될 것을 우려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성별 격차가 드러났는데, 더 많은 남성 노동자(26%)가 여성 노동자(16%)에 비해, 유급휴가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추가적인 개인휴가 활용에 있

8) Brookings Institution(2020.10), 앞의 자료.

9)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20.8.18), "Working moms bear brunt of home schooling while working during Covid-19," Retrieved on Jan 02, 2021,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0/08/parents-juggle-work-and-child-care-during-pandemic.html>

10) Catalyst(2020.12.8), 앞의 자료.

[그림 6] 지난 4주 간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한 노동자 비율



자료: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어서도 남성 노동자(17%)가 여성 노동자(10%)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 내 복지혜택 확대에 있어서도 남성(49%)이 여성(37%)보다 더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실업자나 필수노동자보다는 나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재택근무 역시 가사노동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 [그림 6]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가 더 높은 비율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부분 종사하는 직종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 노동자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Landivar 외(2020)의 연구<sup>11)</sup>에서는 남녀 모두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연성은 팬데믹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재택근무로 인한 유연성은 여성 노동자에게 업무와 가사노동 모두를 요

11) Landivar et al.(2020), “Early signs indicate that COVID-19 is exacerbat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force,” *Sociu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6:1~3.

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페어 플레이(Fair Play)』의 저자 이브 로드스키(Eve Rodsky)는 여성의 시간이 남성의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한다.<sup>12)</sup> 인터뷰에서 로드스키는 여성들이 수입이 더 적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직업유연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혹은 심지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화되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가사노동을 기꺼이 감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시간은 남성의 시간만큼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며 언제든지 희생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 하이디 쉬어홀츠(Heidi Shierholz)는 돌봄노동의 수요 증가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 보았다.<sup>13)</sup> 즉,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먼저 실업자가 되거나 혹은 유연한 근무환경을 통해 소득감소를 당함으로써 경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sup>14)</sup>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의 노동참여 및 근로시간이 2020년 4월 1차 락다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손실임금이 연간 645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수준을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이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들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장기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을 경우 남녀 간에 경제력 격차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이미 오래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sup>15)</sup> 팬데믹 이전에도 전체 여성 노동자의 46%가 저임금군에 속했으며, 특히 흑인(54%) 및 히스패닉(64%)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 종사 비율이 백인(4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육을 이수하고 고임금 산업에 종사한다 해도, 동일 부문

12) Forbes(2020.12.20), "The time bias that is forcing women out of the workforce," Retrieved on Jan 01, 2021, <https://www.forbes.com/sites/hollycorbett/2020/12/20/the-time-bias-that-is-forcing-women-out-of-the-workforce/?sh=27a54e5c76cd>

13) CNN(2020.8.19), 앞의 자료.

14)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20.10.30), "How COVID-19 sent women's workforce progress backward," Retrieved on Jan 02, 2021,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women/reports/2020/10/30/492582/covid-19-sent-womens-workforce-progress-backward/#fn-492582-5>

15) Brookings Institution(2020.10), 앞의 자료.



남성 노동자가 1달러의 소득을 얻을 때, 여성 노동자가 얻는 소득은 92센트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유아 보육비용은 월 900~1,200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의 경우 비공식, 무면허 보육서비스에 의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마저도 보육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성이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데, 동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보육시설이 있는 곳에 비해 그렇지 않은 곳에서 여성 노동력의 참여율이 3% 낮게 나타났다.

## ■ 맺음말 : 바이든 정부의 해결책은?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정책은 보육산업에 투자함과 동시에 유급휴가, 병가, 가족휴가 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sup>16)</sup>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보고서에서도,<sup>17)</sup>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보육시스템에 과잉의존하는 문제와 여성 노동자가 지나치게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바이든 캠프의 여성정책 중 위에 언급한 문제들과 연관된 정책을 보면, 평등한 급여수준, 여성 위주 직업군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강화,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 유급휴가 및 기타 혜택 등의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백악관 성평등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Gender Equality) 발족, 미국 전 주에 걸쳐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급여공정법(Paycheck Fairness Act)」 및 고용주 책임 강화를 통한 차별적 임금 관행 개선과 성별 임금격차 투명화, 노조 결성 용이화를 통한 여성 교섭능력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위주로 충원되는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급여와 혜택을 확

16)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20.8.12), "The COVID-19 Pandemic is forcing millennial mothers out of the workforce," Retrieved on Jan 01, 2021,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early-childhood/news/2020/08/12/489178/covid-19-pandemic-forcing-millennial-mothers-workforce/>

17) Brookings Institution(2020.10), 앞의 자료.

대하는 한편,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및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청사진을 내세웠다. 일-가정 양립 문제에 있어서도,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에 세금 공제혜택 제공, 모든 노동자에게 포괄적인 유급휴가 및 공정하고 유연한 스케줄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 및 간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종식,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여성 소유 비즈니스 투자 확대, 교육 및 훈련 기회 강화, 건강혜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들로 미루어 보면, 현재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 부분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책 또한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인종 문제 못지않게 성별 격차 또한 미국 사회에서 뿌리깊게 진행되어 온 문제이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만큼 과연 얼마만큼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LI**